

감금과 살해 위협 속에 보낸 60여 시간과
6년 동안의 노상 예배
서울 제일교회 사건

서울 오장동에 있는 서울 제일교회는 언뜻 보기에 여느 교회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차도 쪽으로 보이는 허름한 교회 간판을 지나쳐 골목으로 접어들자 교회로 통하는 정문이 나온다. 평일이라 교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텅 빈 예배당을 지나쳐 이층 사무실로 올라간다. 절정에 달한 8월 무더위 속에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구창완 서울 제일교회 담임 목사(50)를 만났다.

서울 제일교회 사건은 민중들의 민주화 열기를 총칼로 억압하면서 정권을 장악한 군부의 민주화·인권운동세력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이었다. 당시 청년집사였던 구창완 목사는 서울 제일교회 사건을 정치권력에 의한 탄압이었다고 말한다. 군사정권의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교회 탄압은 이전과 이후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

일부 교인들과 깡패들이 조직적으로 예배 방해를 하고 폭행과 난동을 부리다가 박형규 담임 목사와 청년들을 감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급기야 서울 제일교회는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고 만 6년 동안 경찰서 앞에서 노상예배를 보게 된다.

서울 제일교회 파괴 음모

1971년 수도권특수지역선교회를 통해 도시빈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박형규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래로 서울 제일교회는 박정희 정권에게 있어서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박형규 목사를 다섯 차례나 구속하고 많은 학생들을 연행, 구금, 투옥한다.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선교정책을 수립하여 1976년부터 청계천 및 중부시장 근로자들을 위해 야학교실 '형제의 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자 더욱 당국의 주의대상이 된다.

5공화국 등장 이후 서울 제일교회와 민주인권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박형규 목사의 활동은 더 큰 시련에 부딪친다. 1981년 9월 제66회 기장 총회에서 박형규 목사가 총회장으로 피선되면서 교회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당국의 음모는 본격화된다.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요원들이 교인들을 몰래 접촉하여 교회를 옮길 것을 종용하였다. 그들은 교회에 계속 나갈 경우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특히 공무원이나 개인사업자들은 쉽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으며, 그 중 일부는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은 반공논리로 한국 교회의 민중선교를 용공좌경이라고 매도한 홍지영 씨의 '정치신학의 논리와 형태'라는 책자를 '삼국지'라는 표지를 씌워 교인들에게 몰래 배포하다가 들키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박형규 목사는 1983년 7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의 주제 강사로 초빙되어 참석하게 되었다. 당시 당국은 박 목사의 활동을 비방하면서 출국을 끝까지 방해했고 총회 후 귀국한 박 목사는 한 장로에게 폭행을 당한다. 성직자 폭행으로 교회가 어수선하던 9월 16일, 박형규 목사 앞으로 '살인' 운운 하는 협박편지가 배달되었다. 협박편지의 내용은, 교회 재산과 운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박 목사를 축출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인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었다. 당국은 박 목사의 대사회적인 발언과 활동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일부 신도들을 사주하여 박 목사의 선교활동과 목회활동을 방해하고 모든 것이 교회 내분임을 가장한 채 교묘하게 교회 파괴 및 박형규 목사 축출을 위한 공작을 추진시킬 수 있었다.

"1983년 10월 2일부터 매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박 목사님의 활동을 반대하는 장로의 가족을 중심으로 20여 명이 책상과 칠판을 두들기며 예배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교인들은 예배 방해자들을 설득하면서 소란 속에서도 주일예배를 드리기로 했지만 예배 방해는 더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일학교용 칠판을 옮겨와 장갑을 끼고 칠판을 두들기거나 식당에서 탁자를 옮겨와 두들기고 나중에는 식당으로 달려가 술뚜껑을 가지고 와서 현금대를 두들기거나 아무에게나 카메라를 들이대고 플래시



- ◀ 예배 방해자들은 예배당 뿐만 아니라 교회 사무실 집기까지 파괴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 ◀ 교회 출입을 할 수 없자 교회 앞 길거리에서 예배를 보는 교인들을 방해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예배 방해자들
- ▲ 1984년 12월 9일부터 기독교 사상 유례 없는 경찰서 앞 노상 예배가 시작되었다.

를 터뜨렸습니다. 설교단의 스피커 선을 끊어 버리고 야간 홀에서 사용하는 초대형 스피커를 가지고 와서 틀어대는가 하면 찬송가 189장을 부르면서 '박형규 목사 물러가라', '용공 목사 물러가라' 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예배 방해 행위는 날로 극렬해져 갔다. 교인들도 아닌 낯선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10여 명씩 나타났다. 그 중에는 머리를 짧게 깎은 젊은이들도 있었다.

1984년 3월 18일 박형규 목사는 마침내 관할 중부 경찰서 충무로 5가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집회 보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집회 현장에는 들어가 보지도 않고 교회 밖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그냥 가버렸다.

폭도로 돌변한 예배 방해자들

예배 때마다 일상화된 몸싸움은 1984년 5월을 전후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단순한 예배 방해가 아니라 예배당 점거를 위한 기물 파괴, 집단 난동, 집단 폭행으로 발전되었다. 그들은 교인이 아닌 젊은이들을 동원하였고 이들과 함께 닥치는 대로 교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예배 방해 사건의 증재를 자청한 목사들이 주일예배의 강단에 섰지만 예배 방해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교인들은 그들에게 쫓겨 유치부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9월 7일 밤 9시 20분 경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교회 사무실에 난입하여 교인들을 위협하고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자신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요원이라고 자처하는 조동화였다. 그가 끌고 온 폭력배들은 중부 경찰서로 연행되었지만, 이튿날 아침 모두 석방되고 그날 이후로 이들은 예배당 안을 활개 치며 돌아다녔다.



박형규 목사

몰아냈다. 결국 교회는 예배 방해자들과 폭력배들에게 점거되었다.

당회장실에 갇혀 있는 13명의 청년들과 3명의 교역자들은 외부와 완전 단절된 채 감금 상태로 이로부터 60여 시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된다.

그때 상황을 박형규 목사(8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목사니까 핍박을 받는다고 하지만 함께

있는 이들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항복해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쪽과 타협해서 모든 걸 풀겠다고 했더니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반대를 했어요. 여기에서 항복을 하면 우리에게 적용된 방법이 군 부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교회에 적용될 거라는 거지요. 우리가 희생되더라도 물러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교인들은 경찰을 믿고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구책을 마련했다. 테러의 위협에 처한 박목사와 교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전경들이 방패로 교인들을 구타하고 폭력배들이 쇠톱과 쇠파이프 등을 휘둘렀다.

11일 저녁부터 서울 제일교회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서는 교인들 외에 목사, 변호사, 민주인사들이 모여 밤을 지새웠다.

60여 시간의 감금과 살해위협的事实은 국내신문에 보도되지 않았고 경찰은 교회를 점거하고 성직자와 교인들을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폭력배들 중 2명만을 불구속 입건했다가 그날 훈방했다.

길거리로 쫓겨난 서울 제일교회

10월 14일부터 서울노회가 예배를 주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정문을 점거하고 교인들을 선별하여 들여보냈다. 교인들은 폭력배들 때문에 교회

60여 시간의 감금과 살해 위협

1984년 9월 9일 추석 전날, 조동화와 함께 교회 사무실에 난입해서 행패를 부렸던 폭력배들이 모두 나타났다. 이들은 ‘때려잡자 민중신학’, ‘물러가라 용공목사’ 등이 쓰여진 어깨띠를 두른 채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은 사진을 찍으려는 황인숙 집사의 손을 비틀고 복부를 때렸고 이로 인해 예배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버렸다. 교인들은 그들의 폭력에 밀려 다시 유치부실로 쫓겨 갔다.

이들은 당회장실로 들어가 박형규 목사를 협박하고 박 목사에게 사표를 쓸 것을 강요했다. 전도사들의 반대로 박 목사는 당장은 사퇴할 수 없다고 하자 박 목사의 얼굴을 구타했다. 재차 폭행을 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곁에 있던 전도사들이 막았고 와중에 구창완 집사 등 13명의 청년들이 폭력배들을 뚫고 당회장실로 들어가서 책상과 의자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예배 방해자들은 당회장실의 전원과 전화선을 끊어 외부와의 연락을 하지 못 하게 만들었고 폭력배들은 마구 폭력을 휘둘러 교회에 남아 있던 교인들을 밖으로



도로변에 있는 제일교회의 문은 주변 영세상가의 간판들과 묘한 조화를 이뤄 쉽게 찾을 수 없다. 골목 뒤로 돌아가야 얼마 전 걸뚫을 갈아입힌 교회 건물이 눈에 띈다.

당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자 교회 앞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렸다. 12월 9일부터는 이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 예배 방해자들과 폭력배들은 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에게까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1984년 12월 9일부터 기독교 사상 유례 없는 경찰서 앞 노상 예배가 시작되었다. 박형규 목사는 주일마다 아침 일찍 치안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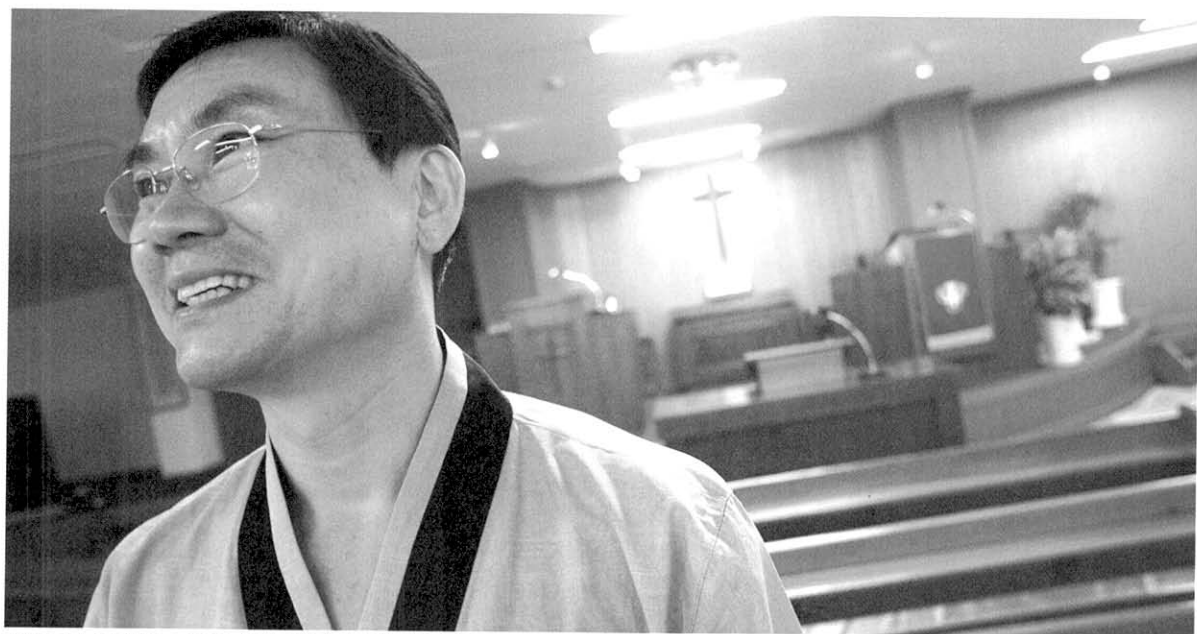
“치안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깡패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볼 수 없으니까 경찰서 앞에서 노상 예배를 볼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만 6년 동안 노상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앞에서 모인 교인들은 행진을 해서 중부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예배를 보는 동안 예배 방해자들과 깡패들이 우리를 빙 둘러싸고 서 있었지요. 성찬을 볼 때는 깡패들도 지켜보기만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장비 없이 예배를 보았고 차츰 핸드 마이크를 사용하고 전자오르간을 옮겨 놓았어요. 예배 때마다 각계에서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일예배 때마다 중부 경찰서 앞에는 서울 제일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방과 해외에서 온 교인들과 정치인과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멀리 외국에서 성직자들이 찾아오고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서진 룸살롱 집단폭력 살인사건’과 서울 제일교회

1986년 8월 14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진회관에서 폭력배들끼리 패싸움을 벌이다가 그 중 4명이 생선회칼 등으로 끔찍하게 난자당한 채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진석파’라는 폭력조직의 별동대장으로 알려진 홍성규는 제일교회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사람이었다. 그는 서울 제일교회 신도로 가장하고 교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이들의 폭력이 우발적이었다며 사건을 축소시키고 8월 22일 서둘러 수사를 종결시켰다. ‘민주화 추진협의회’는 이 사건이 국민의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사건 조사를 벌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서진룸살롱 살해사건의 주모자 가족들, 피해자 가족들, 서울 제일교회 예배 방해 주모자들, 서울 제일교회 교인 등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하고, 이들 폭력단 ‘진석파’가 관여한 ‘신안타운’ 건립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비교적 폭넓은 조사활동을 전개한 뒤 많



공안당국과 폭력배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를 당시에 청년집사였던 구창완 목사가 서울 제일교회 예배당에서 들려준다.

은 문제점과 의혹을 지적하였다.

서울 제일교회 폭력사건에 대해, 신성한 교회당에서 매주 폭력이 자행되었음에도 경찰이 방관한 사실, 사회법과 교회법, 민법의 판결 등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 홍성규가 제일교회 별관 209호 사무실에서 기숙하며 조동화의 지시에 따라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 교인들로부터 고소가 제기되었고 마땅히 조사를 받고 구속되어야 하는데도 주소 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점 등을 제기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서울 제일교회 폭력사건에 대해 홍성규 일당 등 외부 조직 폭력배들이 관여한 청부폭력 사건으로 박형규 목사의 반정부반독재투쟁에 대한 보복이며, 반정부반독재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박형규 목사는 '해방의 길목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정치는 권력 쟁탈의 게임이다.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편은 그 힘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유리한 위치에 서는 법이다. 자기들의 입장을 보다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을 통제하고 시위를 제압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정치도 결국은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양심과 도덕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는 결코 강도나 깡패 같은 무리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밤중에 나가서 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에게도 그 시점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변명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롯 유다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것인가?

글 / 서 성 란

1967년 익산 출생.
1996년 중편소설 『할머니의 평화』로 실전문학 신인상 수상.
장편소설 『모두 다 사라지지 않는 달』과 소설집으로 『방에 관한 기억』 등이 있다.

사진 / 노 순 택

다큐멘터리 사진가(<http://nohst.simspace.com>)